

광주교도소 암매장 잇단 증언...발굴조사 탄력

5·18재단 최소 23구 추정...제보 계엄군과 현장조사키로 '공동묘지 부근에 6구 가매장' 광주지검 작성 자료도 공개

5·18 민주화운동 당시 3공수여단 11대 대 소속 신순용 전 소령의 증언(광주일보 11월13일자 1·3·6면)으로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발굴 조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는 암매장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신 전 소령을 비롯한 증언자 등 계엄군들의 제보가 이어짐에 따라 암매장 조사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재단은 암매장 증언 등으로 미뤄 최소 23구가 교도소 안 밖에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18재단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암매장 증언을 한 신 전 소령 등 당시 3공수여단 부대원들을 초청해 구체적인 지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이 이날 밝힌 제보자들은 신 소령, 본부대대 소속 유모 병장, 15대대 소속 김모 하사 등 3명이다.

신 소령은 광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15대대원들이 광주~담양간 호남고속도로와 교도소 서쪽 담장 중간 지점에 시신 15구를 묻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교도소 북쪽 야산 지역에 시신 10여구를 매장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현재 조사는 담장 쪽으로 너무 붙어서 발굴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유 병장은 최근 재단에 전화를 걸어 "전담대에서 교도소로 이송 중 질식사한 9명의 시신을 손수레에 싣고 옮겼다"며 "현재 발굴 장소는 교도소 담장과 너무 가까운데"라고 말했다.

유 병장은 1995년 서울지검 조사에서 암매장 약도와 기록을 제출했던 김모 소령의 부대원이다.

김모 하사는 지난 9월 재단에 "기관총

등을 묻었던 자리다. 이날 재단이 공개한 광주지방검찰청 작성 '광주교도소 동향'에 따르면 5월 21일 시신 6구가 교도소 공동묘지 부근에 가매장됐으며 같은달 24일 광주지검은 교도소에 전문통신문을 보내 "군 당국과 협의해 가매장한 사체를 발굴, 검사가 검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1989년 국회 광주특위 교도소 암매장 현장 확인에 참여해 "5월22일 새벽 5시 교도소장 관사 인근에 시신을 5구를 가매장했다"고 말한 11대대 소속 이모 병장과 선임 하사들의 증언 내용도 추가 공개됐다. 이들은 교도소 남쪽부지를 암매장 유력한 지점으로 지목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15~16일 교도소 부지와 화순 나터재 도로에 투입된 지하탐사 레이더의 자료 분석이 20일째 완료되면 현재까지 확보한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발굴 조사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기록과 증언을 종합하면 교도소 북쪽 공동묘지 부근에 6구, 북쪽 교도소 담장 인근에 12구, 남쪽 교도소장 관사 앞 소나무숲에 5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굴조사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새로운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김양래 기자 kimyh@kwangju.co.kr

등을 묻었던 자리다.

이날 재단이 공개한 광주지방검찰청 작성 '광주교도소 동향'에 따르면 5월 21일 시신 6구가 교도소 공동묘지 부근에 가매장됐으며 같은달 24일 광주지검은 교도소에 전문통신문을 보내 "군 당국과 협의해 가매장한 사체를 발굴, 검사가 검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1989년 국회 광주특위 교도소 암매장 현장 확인에 참여해 "5월22일 새벽 5시 교도소장 관사 인근에 시신을 5구를 가매장했다"고 말한 11대대 소속 이모 병장과 선임 하사들의 증언 내용도 추가 공개됐다. 이들은 교도소 남쪽부지를 암매장 유력한 지점으로 지목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15~16일 교도소 부지와 화순 나터재 도로에 투입된 지하탐사 레이더의 자료 분석이 20일째 완료되면 현재까지 확보한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발굴 조사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기록과 증언을 종합하면 교도소 북쪽 공동묘지 부근에 6구, 북쪽 교도소 담장 인근에 12구, 남쪽 교도소장 관사 앞 소나무숲에 5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굴조사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새로운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김양래 기자 kimyh@kwangju.co.kr



증언과 검찰 기록으로 본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추정지

- 1 현재 암매장 발굴 조사 지점-북쪽 담장 12구
- 2 이모 병장 증언-교도소장 관사 앞 소나무 5구
- 3 3공수 소령·하사 증언-고속도로 인근 12~15구
- 4 검찰 작성 교도소 동향 보고-공동묘지 부근 6구

"검찰, 전두환 발표 명령 장면 빼라 지시"

'제4공화국' 등 드라마 제작 개입

검찰이 1995년 MBC '제4공화국' 등 드라마 대본을 방송 전 미리 입수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시민들에 발표하려고 명령한 내용을 빼도록 압력을 넣은 정황이 당시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19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1995년 11월 13일자 '서울지검 5·18 관련 드라마 대본 수정 요청'에 따르면 서울지검은 MBC '제4공화국'과 SBS '코리아 게이트' 등 드라마 제작에 개입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최모 서울지검 검사)이 현재 촬영 중인 5·18 관련 장면 가

운데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이 시위대에 발표 명령을 내리는 대본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방송대본을 수정해야 한다고 공보처에 요청한 바 있다고 한다"고 보고했다.

실제 문건 작성 사를 후인 11월 16일 방송된 제4공화국 10회 '오월의 노래 하(下)' 편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발표명령 장면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방송된 드라마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진압하라"고만 지시하고, 계엄군 내에서 "발포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현장 지휘관이 "명령은 도장을 사수하라는 것뿐"이라고 답하는 식으로 발표명령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했다.

뇌물수수 수협 조합장 징역 1년6개월 선고

승진·채용 청탁 돈 받아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강산 판사)는 "승진과 정규직 채용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남 모 수협 조합장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수협 조합장으로서 그 직위와 본분을 망각했고 범행을 은폐하려 관련자를 회유한 정황이 보여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므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식들의

정치 채용 및 과장 승진을 도모한 뇌물 공여자들의 욕심에 편승한 범행인 점, 벌금 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2월 지인 아들인 수협 직원을 승진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 직원은 2010년 7월과 2012년 1월 각각 승진과 정규직 채용이 이뤄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학교시설 지진 무방비 내진설계 비율 전국 평균 밑돌아

광주 23.6%·전남 18.9%

광주·전남에서 내진 설계된 학교시설 비율이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초·중·고교 내진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내진성능을 확보한 학교는 광주 23.6%, 전남 18.9%였다. 이는 전국 내진 적용 건물 평균 24.3%보다 각각 0.7%포인트·5.4%포인트 낮은 수치다.

광주는 총 건물수 1021개 중 대상건물은 929개인데, 이중 내진적용 건물은 219개(23.6%)였으며 나머지 710개(76.4%)는 비적용건물이었다.

전남은 8139개 중 3176개 대상건물인데 이중 600개(18.9%)는 내진적용된 건물이며 2576개(81.1%)는 비적용건물이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학생들이 지진 위험에 노출된 채 공부하고 있지만 보강공사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유·초·중·고교에 매년 1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더라도 2034년이나 돼야 보강공사가 끝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올해 225억 원을 들여 906개 학교건축물을 고철 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초·중·고교 내진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내진성능을 확보한 학교는 광주 23.6%, 전남 18.9%였다. 이는 전국 내진 적용 건물 평균 24.3%보다 각각 0.7%포인트·5.4%포인트 낮은 수치다.

광주는 총 건물수 1021개 중 대상건물은 929개인데, 이중 내진적용 건물은 219개(23.6%)였으며 나머지 710개(76.4%)는 비적용건물이었다.

전남은 8139개 중 3176개 대상건물인데 이중 600개(18.9%)는 내진적용된 건물이며 2576개(81.1%)는 비적용건물이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조폭 전담 경찰간부가 조폭 두목과 계모임

순천경찰 징계성 전보조치하고도 특진 추천 논란

순천에서 조직폭력배 전담 수사를 맡은 경찰 간부가 조폭 두목과 계모임을 했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순천경찰은 이 같은 제보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성 전보 조치까지 했으면서도, 해당 간부를 특진 대상자로 추천했던 것으로 드러난 논란이다.

19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조폭 수사를 맡았던 P경위가 순천지역내 폭력조직인 S와 두목 S씨와 계모임을 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지난달 자체 감찰을 벌였다. 감찰결과 P경위는 지인들과 만든 계모임에서 S씨를 만나 함께 어울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P경위가 S씨로부터 향음이나 금품을 받은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계모임도 지인들의 친목 수준으로 봤지만 처신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순천경찰은 지난달 24일 P경위를 경고 조치한 뒤 지역 파출소로 징계성 전보발령을 냈다. 이후 순천경찰서 인사위원회는 이미 경고를 받은 P경위에 대해 법안검거의 공로가 있다며 특진 대상자로 전남지방경찰청에 추천했다.

순천경찰은 P경위의 그동안 범인 검거 등 근무 실적을 고려해 추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남지방경찰청은 P경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 등이 있다며 특진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성매매 여성 나이 많다"며 알선자 폭행한 2명 징역형



○자신과 성매매한 여성의 나이가 많고 예쁘지 않았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70대 여관 여주인을 폭행한 10대와 20대가 징역형.

○19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강영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A(19)씨와 B(20)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7시께 광주의 모 여관에서 여관 업주 C(여·75)씨로부터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한 뒤 성매매 대금을 다시 돌려달라며

C씨를 폭행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았다는 것.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성매매를 알선한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의 나이 등이 많다는 이유로 알선자를 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아 간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단열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 패널

아파트, 학교, 주택,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옥상 시공

- ▶ 방수, 단열 이중효과!
- ▶ 냉·난방비 절감효과!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합리적 가격, 단 한번 시공!

※ 무료 출장 견적내드립니다.

목포권, 순천·여수권 등 대리점 모집(영업 및 시공)

TWIN 트윈스틸 (모던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45(신안동 478-18)

H 010-9229-3530
062-5 3 1-3530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전국학교 옥상 2500곳 설치확정·관광서 설치

시공 사례: 광주광역시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 서울 노원구청 / 운암동·소룡호텔 / 주월동·성관어린이집, 주월동·노스메이슨건물 / 명선동·안석돌출판건물 / 내방동·내방교회 / 중흥동·진미식당옥상 / 쌍촌동·원도식육옥상, 임지전통김치, 0당구장건물, 힐스테이트옥상 / 화정동·노다지건물 / 목포·한가죽식품, 순천·화이트옥상 / 월곡동·은누리마트 / 서양동·세아금고주요소 외 300곳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anwha Q CELLS 세계판매 1위 / 25년 출력보증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